

오전 아홉 시, 모니터 화면이 밝아오면 나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사내 협업용 모바일 메신저 알림음이 경쾌하게 귓가를 울리고, 화면 위로는 수십 개에 달하는 텍스트가 번개처럼 지나간다. 오십 줄에 접어든 나에게 이 검은 화면과 자판은 이제 돋보기안경만큼이나 익숙한 일터의 풍경이다.

서류 가방을 들고 처음 직장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던 1990년대 초반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그 시절, 스물다섯의 나에게 부여된 일 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한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무색할 만큼 탕비실 커피를 끓이고, 분홍색 서류 봉투를 챙기며, 남성 상사들의 책상을 닦는 일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다. “○○ 양, 커피 둘, 설탕 둘 알지?” 라는 말은 일상의 인사말 같았고, “여직원이 들어오니 사무실 분위기가 화사해지네” 라는 말은 기성세대들이 건네는 최고 수준의 덕담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성별에 따른 명백한 역할 제약이자 편견인 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웃으며 넘겨야 하는 관문이라 여겼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조직의 허리를 지탱하는 50대 중간관리자가 되었고,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다. 커피 심부름이나 노골적인 ‘여직원’ 호출 같은 직관적인 차별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사무실의 물리적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업무와 소통은 디지털 메신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공간이 바뀌었어도 고정관념의 끈질긴 뿌리는 디지털 화면 너머에 여전히 은밀한 형태로 숨어 있었다.

지난달, 팀 채널에 올려진 업무 보고서를 보며 나누던 대화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야간 작업까지 불사하며 까다로운 데이터 분석을 마친 여성 후배의 보고서 아래에 한 동료가 칭찬이라며 댓글을 달았다.

‘역시 여직원들이라 그런지 서류 정리가 섬세하고 깔끔하네요.’

뒤이어 다른 남성 후배가 주도한 대형 프로젝트 승인 소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붙었다.

‘결단력 있게 밀어붙이는 건 역시 남성 팀원의 배짱이 있어야 가능하죠.’

선의에서 나온 칭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앙금이 남았다. ‘섬세함’은 여성의 전유물로, ‘결단력과 배짱’은 남성의 전유물로 분철된 그 언어들. 그것은 칭찬의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프레임이었다. 여성 후배의 과감한 분석력은 ‘여성다운 섬세함’이라는 단어 속에 갇혔고, 남성 후배의 치밀한 논리는 ‘남성다운 배짱’이라는 단어에 덮여버린 셈이었다. 나는 한동안 답장 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그 망설임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침묵으로 넘겨온 습관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돌이켜보니 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였다는 핑계로 후배들에게 “에이, 남자가 그것도 못 버텨?”, “여자가 너무 억세면 부러져” 같은 낡은 단어들을 무심코 내뱉지는 않았던가. 50대 여성으로서 과거의 차별을 견뎌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새로워진 시대의 언어 감수성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게을렀던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메신저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잠시 멈칫하며 단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팀 내 디지털 채널에 작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건넸다. 성별이라는 안경을 벗고, 오직 동료의 ‘역량과 노고’ 자체에 집중하는 언어 습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여성스럽다, 남성답다”라는 수식어 대신 “치밀하다, 추진력 있다, 논리적이다, 집요하게 파고든다”처럼 사람의 전문성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당부했다. 회의실 세팅이나 탕비실 정리 같은 자잘한 가사성 업무 역시 특정 성별에 쏠리지 않도록 순번제를 정해 시스템화했다. 메신저 내에 ‘이달의 동료 칭찬 채널’을 만들어, 성별을 떼어놓고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만을 격려하는 문화를 주도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너무 까탈스럽게 단어를 따지는 것 아니냐”라며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자신이 쓰는 언어의 무게를 깨달아갔다. 메신저 창에는 “○○님의 과감한 결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님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처럼 성별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담긴 텍스트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처음 댓글을 달았던 그 동료가 먼저 나를 찾아와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은 뭐라고 써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의 수고를 조용히 갚아주는 듯했다.

디지털 환경은 익명성이라는 그늘 뒤에서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을 키우기 쉬운 공간이다. 사내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별 대립의 날 선 언어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50대라는 내 위치를 생각한다. 기성세대의 역할은 훈계나 방관이 아니다. 차별을 견뎌온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더 넓고 평등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굳건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디지털 공간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정돈된 피드백 한 줄과 격려의 댓글 하나라는 사실을 나는 일상에서 배워가고 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연다. 업무 채널에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동료들의 차분하고 정갈한 인사들이 쌓여 있다. 성별이라는 틀에 서로를 가두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온전히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일터는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이 된다. 삼십 년 전, 커피를 나르던 스물다섯의 나에게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키보드 위에 얹은 오십의 손은 오늘도 쉽 없이 단어를 다듬는다. 내가 선택한 다정한 언어 한 줄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정직한 수고가 되기를 바라며.